

# 백의 관세음 보살님이 나투신 곳,

#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2012 임진년은 해동용궁사에 특별한 해이다. 용의 해이기 때문이다.

동해 최남단에 자리한 해동용궁사는 1376년에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나옹 대사(懶翁大師)가 창건한 전통사찰이다.

나옹 스님이 경주 분황사에 주석할 때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몽중(夢中)에 동해 용왕이 스님에게 배움하고 말하기를 "봉래산 끝자락에 절을 짓고 기도하면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할지니"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나옹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해동용궁사 터를 찾았다. 스님이 지세를 살피니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아침에 불공을 드리면 저녁 때 복을 받는(背山臨水 朝誠暮福地) 곳이었다. 스님은 절을 짓고 산 이름을 봉래산, 절 이름을 보문사(普門寺)라 이름 지었다. 그러나 보문사는 1592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 이를 300여 년 지난 1930년대 초 통도사 운강(雲崗) 스님이 중창했다. 이후 여러 스님을 거쳐 정암(靑庵)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부임했다.

정암 스님은 통도사에서 수도하다 우연한 계기로 해동용궁사(당시 보문사)를 찾았다. 해동용궁사 주위는 산과 논 뿐이었다. 길은 논 사이로 난 좁은 길 뿐이었다. 절에 사용할 땅감도 적당치 않아 다른 포구에서 배로 연탄을 실어 날라 생활하고 있었다. 스님은 해동용궁사와 처음 인연 후 5년여를 전국 산하를 옮겨 다니며 수행을 했지만 해동용궁사가

섬 불자들이 개인 불상을 소중하게 모시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감명을 받았다. 스님은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낙가산과 진배없는 한국의 관음성지 해동용궁사를 만들겠다고 서원했다.

"절이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피로 서원한 불사는 반드시 이뤄졌습니다. 반드시 성사되었습니다."

반도로 이뤄진 해동용궁사 터 주위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스님은 원력의 실천을 통해 현재 3만여 평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바다에 상주하시는 해수관음대불, 송림사이로 나타나는 108계단, 이 계단 끝자락에서 반겨주는 반월교, 불이문, 미륵불포대화상, 사리탑, 만복문 등 많은 불사를 일궈냈다. 불사마다 녹아든 스님의 맑은 반도 뒷산 전체를 관음성지로 바꾸어 놓았다.

해동용궁사가 관음성지 기도성취 도량, 파란 바닷물의

데 달마 스님과 비슷한 분이 들어와 말을 했다. "달마 대사를 10만장 100만장을

그린다 한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달마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면서, 대체 달마 대사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는 말이 툭 막혔다. 꿈 속에서 달마 대사를 닮은 이는 그의 손을 이끌고 물속 길로 가기를 청했다. 그냥가면 숨 막혀 죽을 수 있으니 포대길만 안으로 들어가라 하여 길만 안으로 들어갔다. 물속 길을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는 포대 밖을 나오라 해서 보니 해동용궁사의 방생터였다. 대웅전 부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않아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처님께서 방긋이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이곳에 데리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해동용궁사의 부처님이었다. 이 꿈이 너무 희유했던 그는 마지막 10만 번째 그림 가운데 3점을 정암 스님에게 보냈다. 몇일 뒤 정문화 당시 부산시장이 해동용궁사를 찾았다. 부산시장의 일행까지 모두 3명이었고, 달마도는 부산시장 일행에게 전달됐다. 이처럼 해동용궁사에는 희유한 일이 끊임 없이 이어져 중생들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이 비밀비재 했다.

정암 스님은 "해동용궁사 중창 불사를 시작하지 30여년

### 빠어난 풍광과 더불어 누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기도영험도량

이 지났습니다. 별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온다는 말처럼 이 도량은 피와 땀이 서린 도량입니다"라고 말한다. 해동용궁사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는 정암 스님의 화두였다.

바다와 용과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곳보다도 신앙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관음성지 해동용궁사, 불국토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대웅보전



만복전

마음 한켠에 걸려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다. 결국 스님은 해동용궁사를 관음도량으로 중창키로 발심했다.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다. 화랑법회를 앞둔 새벽녘 꿈에 백음관음(白衣觀音)보살님이 해동용궁사(당시 보문사)로 걸어들어 오시며 오색광명을 놓으며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친견했다. 관음재일 전국 각 사찰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누추한 해동용궁사에 오셨다는 기쁨에 스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스님이 기침한 후 이른 아침부터 모르는 손님들이 밀려 들었다. 정암 스님은 이때를 "마치 방죽터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관음보살님 친견 후 사명(寺名)을 해동용궁사로 바꿨다. 스님이 관세음보살 친견 후에 중창한 해동용궁사는 기도 영험이 있어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현몽을 받고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신령스러운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정암 스님의 불사는 말 그대로 실천공행하는 불사였다. 해동용궁사 중창은 스님이 반이상 몸으로 이뤄낸 개척사찰이었다.

이후 정암 스님은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하며 그

### 관음성지 해동용궁사에서는 희유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파도가 철썩이는 천혜의 명지로 알려져 참배객들이 줄을 잇자 2012년 1월 10일에는 부산씨티투어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씨티투어 코스로 선정된 곳은 부산의 수천여 가람 가운데 해동용궁사 포함 세 곳 뿐이다.

정암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까닭에 관음성지 해동용궁사에서는 희유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 큰절 신도회장의 며느리가 해동용궁사를 찾았다. 당시 용궁사는 협소한 사찰이었다. 해동용궁사에서 불공을 드린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작은 사찰에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꿈에 며느리는 고향을 가고 있었다.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에 도착하니 화살표로 '해동용궁사'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닌가. 정말 희유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꿈을 깨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또 다른 꿈에서는 어느 날 대학입시를 앞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면담을 청했다. 이 보살은 해운대의 유명한 음식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작고 허름한 집이나 최고의 음식점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것 아닌가. 따라가 보니 108계단을 내려가는데 도착지는 해동용궁사였다. 그리고는 담임선생님은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에 되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했다. 현실에서 아들은 담임선생님이 말한대로 됐다. 결국 이 인연으로 그 보살은 해동용궁사 신도가 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암스님이 공양을 마치던 어느 날 스님에게 달마그림 3장이 배달됐다. 그림과 함께 사연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희유했다. 보낸 이는 당시 대전에 충남도청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불자였다. 그는 평생 달마그림을 그렸는데 10만장째 그리는 날이 되어 묵유재가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불자가 꿈에서 붓을 잡고 화폭 앞에 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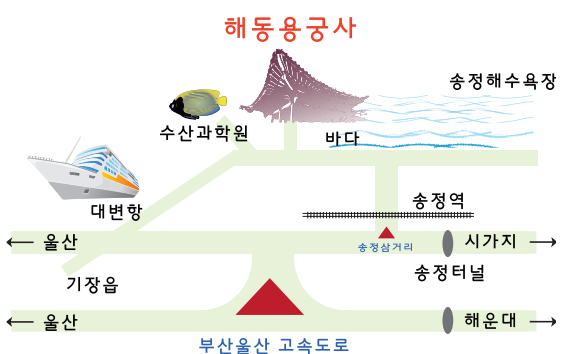
##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DONG YONGKUNG TEMPLE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http://www.yongkungsa.or.kr)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읍 시랑리 416-3  
TEL : 051)722-7755

### 오시는 길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용  
노포동 고속버스 :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환승) - 해운대역 하차  
동 부 시외버스 :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환승) - 해운대역 하차  
서 부 시외버스 : 지하철 2호선 - 해운대역 하차

철도 이용  
KTX : 부산역 하차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 환승) - 해운대역 하차  
동해 남부선 : 7회, 송정역 하차 - 택시 및 181번 버스 이용  
동해 남부선 : 17회, 해운대역 하차 - 택시, 181번 및 송정행 버스 이용  
영동선 : 해운대역 하차 - 택시 및 181번 및 송정행 버스이용



포대화상



사리탑



봉축야경

### 인터뷰

#### 해동용궁사의 현재 추진중인 불사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암스님

해동용궁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소중한 삼보정재이기에 (재)해동불교진흥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암장학회를 설립해 4년제 지방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고, 불자님들의 수행과 불교 홍보를 위하여 해동용궁사 주변에 시민선방인 해동선원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젊은세대 관광객이 해동용궁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조상의 얼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민속박물관을 신축 중입니다. 골동품과 사찰 성보 등 가치 있는 문화재가 전시된 박물관의 성격과는 다른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옛 정신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즉 보존하는 차원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 큰 서원은 동해 최남단 위치에 있는 해동용궁사에 통일 대불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이유는?

해동용궁사는 평범하면서도 특이한 점이 많은 사찰입니다. 신앙과 관광 문화와 정신적인 안식처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세도 배산임수 조성모복지(背山臨水 朝誠暮福地) 아침에 정성을 드리면 저녁에 복을 받는다는 지세입니다.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 또한 백의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서린 사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신령스러운 곳으로써 수많은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를 찾아 일념으로 기도하신다면 서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 해동용궁사만의 특징이 있다면?

해동용궁사 도량 전체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련이 가장 특이합니다. 사찰주련은 대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계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동용궁사 주련은 도량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쓰여 있고, 어느 조사스님이 이리 해 놓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새해.. 대중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수처작주(隨處作主)라 어디가서나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른마음으로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그릇에 따라서 되고 안됨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가 나쁘면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일이나 정진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바퀴만 잘 굴린다면 어느 서원을 세우던지 80%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자기분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절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 나옹화상의 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해동용궁사 용상>